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기업 모두 '만족'... 내년 1만명 확대

고용부, 일경험 사업 성과 분석
기업 4193개, 청년 3.9만명 참여
청년 직무탐색 도움 46.5% 향상
기업 인지도 35.5% 대폭 증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A청년은 관심 있던 기업에서 냉동공조 시스템 설계 및 개발지원 실무를 경험한 후 본인의 적성을 확신하게 됐고,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B청년은 GS인증 관련 경험을 쌓은 뒤,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비지원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채 종말, 바늘구멍 뚫기 채용 시장 속에서 청년은 직무역량을 쌓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4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과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탐색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

17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

직무탐색 도움, 기업 인지도 개선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 참여 전에는 직무역량 향상에 대한 평가는 55.1점이었지만, 참여 후에는 79.4점으로 44.1%(24.3점) 올랐다. 직무탐색 도

움은 57.6점에서 84.4점으로 46.5%(26.8점) 올랐고, 기업 인지도 개선의 경우 66.0점에서 89.4점으로 35.5%(23.4점) 증가했다. 참여 기업들 또한 우수 인재 탐색과 산업·기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등으로 만족도가 높다.

'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참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C청년은 "실제 아티스트와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점과 다양한 기획·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회사 입사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기업에서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류 제조 판매업종 일경험을 지원한 한솔그룹은 "사업 참여 이후 공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7배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맞춰 지난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신설했다. 현장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 8000명으로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까지 약 3만9000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4193개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청년 지원 인원을 1만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우수 지역기업 컨설팅 등 청년과 기업이 일경험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부산·상주 스마트팜 우수사례 참관
청년농업인들과 현장애로 사항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

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실 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요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에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온라인농산물 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21~25일 특별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농산물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사과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1~25일 닷새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수거·검사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 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

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정보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일터혁신 컨설팅 통한 기업-근로자 상생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사례공유’

노사발전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상생지원협회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지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을 논의하고, 사업성과의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먼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연합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기 용인시 요양시설 4개사(다인실버케어 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시니어케어 요양원, 늘봄실버타운 요양원)의 컨소시엄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근로 형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한 4개 요양원은 교대제 근무(3조 2교대)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요양보호사의 이직률 개선이라는 공통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설립 1년 만에 근로자가 50~60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근로

자 간 반목이 심하고, 노사 간의 신뢰 형성을 맺을 시간적인 기회가 부족했다. 4개 요양원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조절하면 서도 주 52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했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치과 보철물을 인공 지능(AI)으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마고웍스’가 발표했다. 회사는 인사관리(HR) 시스템을 일 중심으로 구축하고, 단계별 요구 역량과 업무 기대치를 투명하게 제시해 조직 내 성과와 성장 중심의 문화를 강화하고자 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직무별 커리어 래더(career ladder) 단계를 설정했다. 개별 구성원의 레벨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커리어 래더 제도를 도입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가루쌀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혜택”

이마트·네이버·쿠팡과 4주간 협업
온라인서 ‘가루쌀몰’ 개설해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4주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그간 출시된 가루쌀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50% 할인에 판매한다. 할인행사 기간은 이마트가 10월18일~10월31일 2주간, 네이버가 10월18일~11월17일 4주간, 쿠팡이 10월24일~11월17일 3주간

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와 협업해 국내 이마트 전 지점(131개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그중 매출액이 높은 70개 지점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실시한다. 또 구매자 선착순으로 가루쌀 기념품(행주, 달력, 인형키링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서울 왕십리점에서는 가루쌀 시식·전시매장을 운영해 가루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토크 이벤트를 통한 성심당 마들렌 등 선물 증정 행사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 ‘가루쌀몰’을 개설해,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또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 1000원권을 지급한다. 쿠팡 ‘착한상점’의 경우, 동일 행사를 한 주 늦은 24일부터 시작하며 할인된 품목에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가루쌀을 사용해 개발·출시한 제품”이라며 “가루쌀 제품은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